

특허청, 전력기술 고도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한다

- 한전 전력연구원과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19.(수) 14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내 전력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인한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장거리 전력망 연계에 유리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의 급부상으로 초고압 전력케이블 등의 전력기자재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전력반도체 소자를 이용,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이번 간담회는 HVDC를 포함한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에 관한 산업동향과 지재산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HVDC 기술 운영·정책 현황,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개발 이슈 및 HVDC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전력분야 명품 특허창출을 위한 방안 및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효율적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최근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전력산업 분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기반의 기술 고도화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바,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붙임: 현장 방문(한전 전력연구원) 계획,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전기통신심사국 전기심사과	책임자	과 장	제승호 (042-481-5702)
		담당자	사무관	곽태근 (042-481-5712)
			사무관	김성곤 (042-481-5152)

□ 현장 방문 개요

- (주제) HVDC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 HVDC 분야 관심 이슈 >

- 특허청 : 국내 HVDC 운영·정책 현황, 기술개발 이슈, 新기술 개발 동향
- 전력연 : 既보유 지식재산의 활용 방안,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 (일시) '25. 3. 19.(수), 14:00 ~ 15:30

- (장소) 한전 전력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 주요 참석자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국장, 제승호 전기심사과장 외 5명

(전력연구원) 심은보 전력연구원장, 우정욱 전력연구원부원장 외 5명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간담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 양기관 인사 말씀	전기통신심사국장 전력연구원장
14:10~14:50	40'	■ 전문가 주제 발표	
14:10~14:30	20'	【1】 HVDC 기술개발 동향	(전력연) 이성두 책임
14:30~14:50	20'	【2】 국내외 HVDC 특허 동향	(특허청) 변영석심사관
14:50~15:05	15'	■ 현안 토의	참석자
15:05~15:10	5'	■ 기념 촬영	(전력연) 홍보 담당
15:10~15:30	20'	■ 연구 시설 방문	참석자